



여수 송기훈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회순 박순철

# 순천 외서면, 우량 딸기묘 생산 구슬땀

## 최적 기온·준산간지 지리적 이점 바탕 전국 제일 고품질 딸기묘 계약 주문 쇄도

순천시 7대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국내 최대 딸기묘 생산단지인 외서면 딸기묘 생산단지에서, 지난 3월 정식한 어미묘에서 런너(어미묘에서 새끼묘 유인)작업에 한창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외서 딸기묘는 재배에 적합한 최적의 기온과 준산간지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다. 런너 작업을 마무리 하면 7월부터 눈꽃처리후 8월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다.

현재 전국의 수출딸기 생산단지와 주요 딸기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계약 주문을 받고 있으며, 상토포트는 1주당 450원, 마시포트는 330~350원, 노지묘는 200~250원에 공급되며 재배 방식과 품종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다.

외서 딸기묘는 순천시의 맞춤형



생산단지 육성 지원을 통해 베드시설 재배방식으로 고품질묘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딸기묘 생산단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전국 딸기 생산 농가에서 자가육묘 사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육묘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풍, 추황 등 1,250만 주의 딸기묘를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판매하여 35여명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열매딸기 초속성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기존의 딸기묘와 더불어 연중 생산으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천=김종영 기자

##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 개최

내일 광양읍 실내체육관 일원서

광양시는 오는 7일 광양읍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1회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21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영·호남의 화합과 발전은 물론 동호인 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양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 배구, 체조 등 10개 종목경기가 치러진다.

행사는 광양의 벨리댄스팀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과 선수선서, 동호인간의 상호인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여, 10개 종목 300여 명의 선수들이 각 종목별 교류전이 펼쳐

며, 이웃사랑 생활체육인들의 우정과 화합, 형제애를 돈독히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삼식 체육과장은 "이번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를 통해 영·호남 간의 상생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양을 찾은 하동군 동호인들이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대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 축제는 삼진강을 사이에 둔 이웃사랑인 광양시와 하동군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이 매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하동군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됐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나주시, 초·중생 영어학연수 사전설명회

나주시는 관내 초·중학생 대상 글로벌 인재양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2018년 여름방학 미국어학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 인원은 총 60명(초·중 각 30명)으로 초등학교는 미국 서부 워싱턴주 '웨네치벨리대학'에서, 중학생은 동부 메릴랜드주 '하워드카운티대학'에서 오는 15일 출국해, 3주간의 어학연수 일정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학생, 학부모 130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갖고, 어학연수 준비사항 등을 안내·당부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 대계"라는 소신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학연수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복지시책을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어학연수가 영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바른 인성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해당 초·중학생들은 지난 5월, 1차 필기시험, 2차 원어인 인터뷰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보편적 교육복지 확산을 위해 저소득 가구 학생들이 일부 포함됐다.

이들은 나주시와 국제교류를 추진 중인 웨네치벨리대학과 하워드카운티 하워드카운티대학에서 현지 ESL수업, 주말 견학·문화체험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힌다

## 순천시, 국토교통부 소규모재생 사업공모 2곳 선정

3회 연속 선정...전국 최다

순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18년도 도시재생 소규모 공모사업'에서 매곡동 그림책도서관 일원과 순천역 일원 2곳이 추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토부가 정한 쇠퇴충격도 (인구감소, 사업제한, 노후건축물 비율)를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거점공간조성 및 활성화계획수립을 통해 향후 뉴딜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8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

평가와 2차 대면평가 (6.21~22)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그림책도서관 주변 쇠퇴구역에 대해 그림책특화공간 조성, 마을축제 개최, 돌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등이 국토부 평가단의 관심을 끌었고, 순천역 주변 역사권 쇠퇴구역에는 트레일센터 조성, 영호남 청소년 축제개최, 여르신 집수리단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이번 사업에 반영될 계획이 다.

순천시는 이번 소규모 재생을 통

해 국토부 도시재생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도심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의 4개 목표에 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019년 뉴딜공모에 본격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2014년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함평, 중앙동 일원이 선정되어, 국토부 최우수 평가 3회(2015~2017년), 도시재생 한마당 전국 지자체 대상(2017년) 수상 등 대표적인 도시재생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회순군, 장마기 농작물 관리 및 PLS교육

회순군은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7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농촌지도자 회순군연합회 2분기 총회와 장마기 농작물관리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총회는 3분기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실천 할 과제 등에 대한 토의를 통해 FTA 등 열악한 농업환경을 이겨내갈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을 위한 현장 실천방안 마련과 태풍과 장마기에 따른 농작물 관리요령과 PLS 실천 등 역량강화 교육에 역점을 두어 실시되었다.

특히 구충곤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농업의 6차 산업화로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고령, 영세, 소농지원 및 농민 수당제를 시행하여 농업인이 대접받는 군정을 펼쳐서 '행복 1번지 회순'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태풍과 장마기 농작물 관리 역량강화 교육은 금년 농

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로 벼 물관리, 시비관리, 병해충 예방과 방제 및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을 통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의 안전사용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지역의 선도자로 마을마다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 회순군연합회(회장 정승재)는 14회회, 620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의 핵심인력으로 더 행복한 회순농업을 이끌어가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분기별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농촌지도자회원들이 농업의 선도자로 활동하는데 적극 뒷받침하여 소통하고 농업발전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여 '행복 1번지 회순'으로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회순=박순철 기자

## 광양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우수한 성적 거둬

옥룡 도선국사마을 최우수·광양읍 본정마을 우수상 수상



광양시는 전남도·전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전라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이번 콘테스트 경연대회에서 옥룡 도선국사마을이 최우수상, 광양읍 본정마을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지

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례 경연 평가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목포대학교 플라자(8) 소극장에서 열린 콘테스트에는 소독·체험분야 등 총 5개 분야에 광양시를 비롯한 8개 시·군 15개 마을에서 참가해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마을 발전계획과 사례들이 발표됐다.

소독·체험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선국사마을은 아로마테라피 체험시설과 매화수 족욕 체험장 등 신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 결과 연평균 4만 명 방문과 4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지속가능한 마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도선국사마을은 이번 최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오는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소독·체험분야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할 기회를 얻었다.

경관·환경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광양읍 본정마을은 자연자원인 금광, 라벤더 꽃단지를 활용한 마을 발전계획과 단합된 공동체 활동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

장성군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